



“우승이다”

한국 유승민과 북한 김혁봉 선수가 23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의 국제 탁구친선전 '피스 앤드 스포츠컵'에서 20년만에 단일팀으로 우승을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된 남북 탁구 '피스컵' 우승

남자복식 유승민·김혁봉 정상… 여자복식 김경아·김혜성 조는 준우승

20년 만에 '작은 단일팀'으로 다시 뭉친 남북한 남자 탁구 선수들이 국제 탁구 친선 대회인 '피스 앤드 스포츠컵'에서 우승을 합작했다.

남측 대표로 나선 유승민(삼성생명)과 북측의 김혁봉(26)은 2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아스파이어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판이용(미국)-그리고리 블라소프(러시아) 조를 3-0(11-9 11-3 11-

4)로 완파했다.

10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작은 친선대회 긴 하지만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남북 선수들이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이번 대회에서 함께 정상에 오르며 우승 상금 1만5천 달러를 나눠 가졌다.

20년 전에는 여자 대표들이 단체전 우승을 합작했다면 이번에는 남자 선수들이 자존심을 세운 셈이 됐다.

유승민-김혁봉은 첫 경기인 준결승에서 천진(중국)-알 모하나니 아흐마드(카타르)를 3-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김혁봉이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기회를 염두에 두었지만 유승민이 장기인 드라이브 공격의 위력을 살려내는 등 호흡을 맞춰 판이용-블라소프 조까지 가볍게 제압했다.

앞서 열린 여자 복식 결승에서는 김경아(대한항공)-김혜성(17) 조가 릴리 장(미

국)-아나 티코미르노바(러시아) 조에 2-3(11-8 8-11 11-3 3-11 8-11)으로 져 준우승했다.

1번 시드로 준결승에 직행한 김경아-김혜성 조는 첫 상대 미야케 나쓰미(일본)-카를 그룬디시(프랑스)를 3-2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 남녀부 동반 우승을 노렸지만 막판 뒷심에서 밀려 2위에 주어지는 1만1천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연합뉴스

20년만에 남북단일팀

관종석서도 함께 응원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이뤘던 남북 탁구가 20년 만에 다시 한 팀으로 뭉쳐 '작은 통일'을 이뤄냈다.

22일 저녁(한국시간) 국제 탁구 친선대회인 '피스 앤드 스포츠컵'이 열린 카타르 도하의 아스파이어 스포츠 아카데미.

여자 복식에서 호흡을 맞춘 김경아(34·대한항공)-김혜성(17) 조가 결승전 상대인 릴리 장(미국)-아나 티코미르노바(러시아) 조로부터 포인트를 빼앗을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 소리와 함께 '잘한다'는 추임새가 터져 나왔다.

스무 명 남짓 스탠드 한편에 모여앉아 열

성적으로 응원한 이들은 카타르 현지에서 일하는 북한 출신 주재원들이었다.

이들은 김혜성이 날카로운 공격으로 상대

의 힘을 쳐 때나 김경아가 철벽 커트 수비

로 상대편 공격을 막아낼 때마다 한결같이

응원했다. 실수로 아까운 포인트를 내줄 때

면 긴 탄성을 내질렀다.

경기 장면을 비디오로 활용하거나 선수들

이 쓴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북한에서는 축구 말고는 탁구

가 생활체육으로 가장 인기가 높다는 북한

면 나이 어린 김혁봉과 김혜성은 만만치 않은 입심으로 받아치는 등 함께 보낸 이를 내

내 유쾌한 공기가 흘렀다.

팀의 막내지만 당차게 우승하겠다고 다짐했던 김혜성이 준우승에 머물러 눈에 띄게 힘 빠진 모습을 보이자 파트너 김경아를 비롯한 남북 대표단 관계자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기운을 북돋워주기도 했다.

짧지만 긴 일정을 마친 남북한 대표단은 따로 모여 인사를 나눌 자리를 갖지 못하고 경기장에서 작별했다.

“이틀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만나나?”

“다음번 국제대회 때 또 봅시다!”

기약없는 이별을 한 이들의 얼굴에는 다시 만나길 갈망하는 표정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연합뉴스

현정화 국제탁구연맹 명예의 전당에

현액 60명 중 한국 출신 처음

현역 시절 한국 여자 탁구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였던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전무가 국제탁구연맹(ITTF)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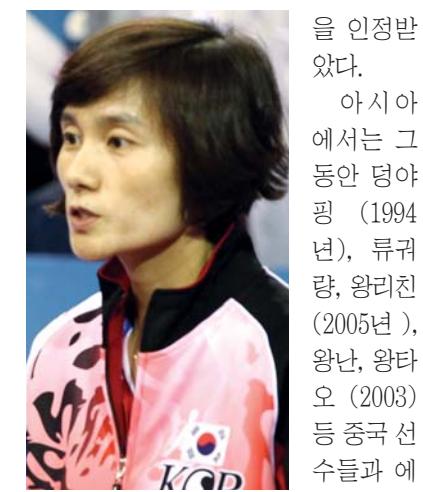
카타르 도하에서 국제 탁구친선전 '피스 앤드 스포츠컵'에 참가 중인 현 전무는 22일(현지시간) 대회 공식 호텔인 리조칼튼 호텔에서 아담 사리라 ITTF 회장으로부터 '명예의 전당' 가입 기념패를 받았다.

ITTF는 1993년부터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선수 등 탁구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뽑아 명예의 전당에 올린다.

지금까지 현액 60여 명 중 한국 출신은 현 전무가 처음이다.

선수 출신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려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소 5개의 금메달을 따야 가능하다.

현 전무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여자 복식 금메달을 비롯해 1987년 뉴델리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복식, 1989년 도르트문트 대회 혼합복식, 1991년 자바 대회 여자 단체전, 1993년 에테보리 대회 여자 단식에서 각각 우승한 공로 등



을 인정받았다.

아시아에서는 그 동안 덩야 핑(1994년), 류귀량, 왕리진(2005년), 왕난, 왕타오(2003년) 등 중국 선수들과 에

구치 후지에(1997년), 노부코 하세가와(2001년) 등 일본 선수들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ITTF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

현 전무는 2005년 이후 5년 만인 지난 해 공링후이, 왕하오, 마린 등 10명과 함께 새로 이름을 올렸다.

자신이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기념패를 받은 현 전무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부담도 된다. 탁구를 해서 받은 상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골프 월드컵’ 열린다

오늘부터 中 하이난다오서

한국 김형성·박성준 출전

남자골프 국가대항전이 월드컵 골프대회가 24일부터 나흘간 중국 하이난다오의 미션힐스 골프장에서 열린다.

1953년 창설된 이 대회는 2009년까지 해마다 열렸지만, 이후에는 격년제로 변경됐다.

올해 대회에는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뛰는 김형성(31)과 박성준(25·티웨이 항공)이 짝을 이루 한국대표로 출전한다.

김형성은 이번 시즌 일본무대에서 상금 랭킹 43위, 박성준은 36위를 달리고 있다.

월드컵에 9회 연속 출전하는 한국은 2002

년 대회에서 최경주-허석호가 공동 3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냈고, 2009년 대회에서는 양용은-위상수가 공동 7위를 차지했다.

28개국이 격돌하는 이번 대회에는 출전 선수들의 면면이 쟁쟁하다.

‘차세대 골프황제’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로리 메킬로이와 2010 US오픈 챔피언 그레厄임 맥도웰이 아일랜드 국기를 달고 출전한다.

또 이안 폴터-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미겔 앙헬 히메네스-알바로 키로스(스페인) 등 정상급 프로선수들이 자국의 명예를 걸고 샷을 날린다.

지난번 대회 우승자인 에도아르도-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 형제는 이번에도 짧을 이뤄 2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나상욱 자선 골프대회

아마추어 144명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재미교포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자선 골프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제1회 캠비 나 초청 골프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대회는 12월 8일(한국시간)

LA 인근의 인더스트리 힐스 골프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자선기금 모금을 위한 아마추어 대회로, 144명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올해 ‘최고 검객’ 가린다

전국 4단 이상 100명 참가

올해 ‘최고 검객’을 가리는 대통령기 제33회 전국 일반검도선수권대회가 26~27일 서울을 찾는 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시·도에서 선발된 4단 이상 선수 100여 명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경기를 펼친다.

2012년 이탈리아 노바리에서 예정된 제15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국내 정상급 검객들도 총출동한다.

/연합뉴스

‘통일 탁구’ 역시 세계 최강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이뤘던 남북 탁구가 20년 만에 다시 한 팀으로 뭉쳐 ‘작은 통일’을 이뤄냈다.

22일 저녁(한국시간) 국제 탁구 친선대회인 '피스 앤드 스포츠컵'이 열린 카타르 도하의 아스파이어 스포츠 아카데미.

여자 복식에서 호흡을 맞춘 김경아(34·대한항공)-김혜성(17) 조가 결승전 상대인 릴리 장(미국)-아나 티코미르노바(러시아) 조로부터 포인트를 빼앗을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 소리와 함께 ‘잘한다’는 추임새가 터져 나왔다.

스무 명 남짓 스탠드 한편에 모여앉아 열

성적으로 응원한 이들은 카타르 현지에서 일하는 북한 출신 주재원들이었다.

이들은 김혜성이 날카로운 공격으로 상대

의 힘을 쳐 때나 김경아가 철벽 커트 수비

로 상대편 공격을 막아낼 때마다 한결같이

응원했다. 실수로 아까운 포인트를 내줄 때

면 긴 탄성을 내질렀다.

경기 장면을 비디오로 활용하거나 선수들

이 쓴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북한에서는 축구 말고는 탁구

가 생활체육으로 가장 인기가 높다는 북한

면 나이 어린 김혁봉과 김혜성은 만만치 않은 입심으로 받아치는 등 함께 보낸 이를 내

내 유쾌한 공기가 흘렀다.

팀의 막내지만 당차게 우승하겠다고 다짐

했던 김혜성이 준우승에 머물러 눈에 띄게 힘 빠진 모습을 보이자 파트너 김경아를 비롯한 남북 대표단 관계자들이 어깨를 두드

리며 기운을 북돋워주기도 했다.

짧지만 긴 일정을 마친 남북한 대표단은 따로 모여 인사를 나눌 자리를 갖지 못하고 경기장에서 작별했다.

“이틀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만나나?”

“다음번 국제대회 때 또 봅시다!”

기약없는 이별을 한 이들의 얼굴에는 다시 만나길 갈망하는 표정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연합뉴스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
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